



• 특별강연 •

한·일 교류의 새로운 시대

아스나 미즈호

일본 작가

한국인의 실상

1. 한·일 교류의 동기

한·일 교류의 새로운 시대. 여기서 특히 ‘새로운 시대’라고 한 것은 한·일 양국이 공동 개최한 월드컵도 무사히 마쳐 양국 관계가 한층 좋아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다 2002년은 한·일 국민 교류의 해로, 공공 기관에서 후원한 문화 예술 행사만도 262건에 달하고 있다. 이것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않아 민간 차원의 음악이나 영화 교류 전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그 반면에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모르고 있는 일면도 있다. 예컨대 일본인이 상상하고 있는 한국이란, 불고기 요리나 패수건 정도겠지만, 실제로 한국은 경제 발전을 이룩한 IT(정보 기술) 국가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한국의 사정이나 양국 교류에 관해 소개했으면 한다.

국제 교류는 그 동기나 상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째는 ‘국경을 초월한 같은 인간으로서’이다. 이런 이상적인 교류는 원래 일본이 아시아보다는 구미(歐美)를 상대로 평등한 취급을 받기를 원해 시작한 경우가 적지 않다. 말하자면 쫓아가 추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5년쯤 전부터 두 번째의 다른 동기, 즉 이른바 ‘민족 문화 봄’이 일어남에 따라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른바 제3세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선진국의 개발 지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한·일 양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물론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이나 중국의 개혁·개방 등 한 나라로서 돌발적인 관심이 높아진 면은 있다. 다만 직접 투자나 ODA(정부 개발 원조) 같은 차원에

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 인식으로 ‘인근 국가’라는 존재가 총체적으로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작년에 교과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를 전후해 일본인의 해외 여행지도 동아시아 인근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원래라면 인접국으로부터 서서히 국제화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일반 사회에서는 훨씬 먼 곳에 있는 구미로부터 중간 정도의 발전 도상국으로, 그리고 인근 국가로, 반대 방향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고 본다. 즉 120년 전의 명치유신 이후 구미를 목표로 하고 그 이면에서는 아시아를 식민지 배한 것이 영향을 주어, 마찰이 많은 가까운 곳일수록 무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지도 모른다.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두운’ 경우도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은 한·일 교류에 관한 논문으로 한국의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이 공동 수여하는상을 받은 이후로 한·일 양국에서 15권 가까운 책을 냈지만 요즘 하고 있는 한·일 교류 활동 중에서 매일 느껴온 것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자세 변화'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류라고 하면 서로 불러들여 모임을 가지는, 즉 국제교류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등이 주동이 돼 만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역시 '머리로 생각한다'는 이성이 앞서가는 교류가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시대의 조류 때문인지 적어도 요즘 10년간의 한·일 관계는 오히려 감성이 앞서는 것 같다. 우연한 일로 사람이나 물건과 만나 접촉을 시작한다. 어느 사이에 팬끼리 모이게 된다. 예능 등 감성을 중요시하는 상업 차원의 한·일 협력도 적지 않다. 말하자면 격식을 차리지 않는 일상적인 교류라고나 할까.

이런 변화의 요인으로는 첫째, 아시아의 경제 발전, 둘째, 정보화 사회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마치 기러기 떼가 부채꼴 모양으로 날아가듯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경제 성장이 과급된다는 구도였지만, 일단 아시아가 고도 성장을 끌낸 지금에 와서는 그 무리가 한없이 옆으로 나란히 서려고 하고 있다.

대중 문화나 유행도 아시아 각지에서 '동시성', 즉 시간차가 없는

것이 눈에 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두 번째로 제시한 정보화이다.

2. 광역 통신 대국인 한국

한국이 국책으로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광역 통신 설비를 갖춘 것이 1999년이다. 일본이 「e-Japan 전략」을 결정하기 2년 전의 일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ADSL 서비스가 시작된 2000년 말에는 가입자가 1만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이용자가 4백만명을 넘고 있었다고 한다.

고속 인터넷의 보급률도 명실공히 세계 1위로, 일설에 의하면 인구의 48%(OECD, 국제전기통신연합, 프랑스의 유력지 등에서 조사)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광통신선을 갖춘 고급 맨션, 이른바 사이버 단지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반영하듯,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률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터넷 조사 기관인 널슨 네트 트레이딩스사 조사)에서 월 평균 이용 시간이 19시간 20분, 접속 회수가 26회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일본·캐나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2001년 7월).

한국의 인터넷 이용료는 거의 정액제여서 일본과 같은 시간제는 드물다. 메일을 보내기 위해 그때마다

접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접속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IT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간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

광역 통신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TV의 융합도 추진하기가 용이했는지 인터넷 방송국만도 1,000개 이상에 달하고 있다(2000년 10월). NHK에 해당하는 KBS에서 영세 개인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난립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한국의 TV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발전한 요인으로는 인터넷 이용 장소를 들 수 있다.

PC방, 즉 인터넷 카페를 목적에 따라 특별히 꾸민 시설이 일본 이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다. 그 대부분은 게임 센터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다. 한국에서는 가정용 게임 기계는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 수입되는 것 뿐이고 일반적으로 PC가 주가 돼 있어 신세대와 최신 기기인 PC가 일본 이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히트 비결은 대전형(對戰型) 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과 같이 가기 방에서 혼자 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

여기서도 한국인의 기질을 엿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 이상으로 인간 관계가 친밀하다고 한다. 어쨌든 여자 아이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걷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갓난 아이의 경우는 외국의 아이들에 비해 어머니 살결의 온기에 자기의 체온을 맞추는 조절 기능이 훨씬 발달돼 있다는 조사 보고도 나와 있다. 또 혈연 의식도 강해 조상을 모시는 제사가 중요시되고 있어 이상적으로는 선조 5대까지 연간, 열 번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한다. 그래도 최근에는 바빠서 친족이 모두 모일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다 묘지 용지 부족난도 겹쳐 화장을 장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이 사이버 추도 서비스다. 납골자가 홈페이지에 올리면 친족들이 제사 대신에 네트를 통해 고인을 추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이트 상에서 고인의 생전의 모습과 소리를 재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발전한 것이 가계보 사이트다. 한국에서는 ‘본관’, 즉 자기의 가계적인 뿌리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몇 백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일족이 각각 ‘본관’ 홈페이지를 갖고 일족의 기원(起源)이나 역대 중요 인물들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친구로부터 600년 전의 조상을 소개받았을 때에는 정말 깜짝 놀랐다.

3. 네트 세대의 한·일 교류 방안

이런 네트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상으로부터 인간 관계, 사고 방식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생겨도 이상할 것이 없다. 외국인과의 접촉도 포함해서 말이다. 특히 신세대는 사고 방식에 이르기까지 ‘키워드 검색’이나 ‘클릭’ 방식인데 너무나 정보량이 많아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만을 골라내 네트 서핑(net surfing)하는 요령으로 고구마 넝쿨 거두듯이 이에 따른 자료를 줄줄이 거두어내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단편적인 정보 처리 능력은 크게 향상되겠지만 그 대신 체계화나 전체적인 정보나 능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즉 연역법(演繹法)이 아닌 귀납법(歸納法)인데, 그 결과로 우선 하나하나가 먼저 있어야만 된다는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되면 자신도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지금 매스 미디어는 이미 ‘매스’가 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방향을 잡을 수 없다”고 잡지나 서적 편집장들이 개탄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방향이나 슬로건, 이데올로기 등의 방향성의 ‘선’, 개인은 여기에 따른다기보다는 ‘마이 블’을 발산시키고 있다. 마치 별의 수 만큼 있는 사이트 같이 개개의 점이 무한히 흩어져 있어 공간망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을 잠재 의식 수준의 이른바 ‘집단 의식’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어설픈 모임 속에서 필요한 사람들끼리 교

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교류의 새로운 형태’, 그 배경에는 두 가지 변화가 보이고 있다. 첫째로 서로에 대한 의식의 변화다. 한·일의 신세대는 세계화 속에서 서로 생활 방식에서 공통된 부분이 많은 탓인지 상대방을 같은 크기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 문화도 해외의 것이라기보다는 자국의 하위(下位)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나라 것이니까 아니고 좋아진 것이 결과적으로 그 나라였다고 하는 식이다.

두 번째 변화는 서로간의 거리감이다. 예컨대 IT 기술 혁신의 선물의 경우, 그 주력은 역시 e-메일이다. 자기의 체험상, 에어 메일용의 주소나 국제 전화 번호를 아무리 알고 있다 해도 비용 문제로 교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생한 한·일 국제 부부가 수없이 많다. 그런데 e-메일이 보급됨에 따라 반대로 펜팔이 면회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거리감의 단축은 교신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도쿄·서울간이 비행기로 2시간, 그 거리 척도가 1세기 전에 비해 3분의 1로 축소된 것이다. 마치 도쿄에서 오사카로, 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최근에는 일본의 직장 여성들도 “일의 피로로 덜 겸 잠깐 서울에서 쇼핑하고 오겠다”고 주말에 2박3일



로 한국 여행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2001년의 일본인의 한국 여행자 수가 연 237만7,321명에 달해 해외 여행지로는 제1위의 인기를 과시하게 되었다.

반대로 한국인도 일본으로 오는 유학생 중에서 1위를 차지해 연간 128만6,583명에 이르고 있다 (2000년). 이것을 뒷받침하듯 도쿄 오쿠보의 이론바 ‘코리아 타운’에는 그들의 구매력 때문에 한국인 상대의 생활 정보에 관한 무가 잡지가 5가지나 난립하고 있다. 한국 관련 상점의 광고료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정도라는 것이다.

물론 한·일간의 국제 결혼도 적지 않다.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현재 20쌍 중 한 쌍이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데 일본 여성의 결혼 상대로 가장 많은 것이 한국 남성이고 그 다음이 미국으로 돼 있다. 일본 남성의 경우는 한국 여성이 중국 여성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 국내에서는 한국 남성의 상대자는 1위가 중국 여성으로 돼 있지만 한국 여성의 경우는 일본 남성이 1위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한·일의 신세대인 것이다. 일본에서는 ‘신인류(新人類)’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한국에서는 ‘X세대’라고 했다. 구세대에게는 마치 우주인 같이 불가사의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여기에 Y세대가 그 뒤를

잇고 최근에는 네트를 의미하는 N 세대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한·일 신세대에 공통된 특색은 앞서 말한 국제성 이외에 또 한가지 포식(飽食)이라고나 할까.

이것은 여담이지만 일본 사케(술)와 한국의 소주는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이 ‘여기서 일본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소주를 사발에 잔뜩 부어 단숨에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다운’이다.

4. 구세대의 소속 의식 비교

신세대의 특색이 무국적이라고 할 정도로 국제적이고 ‘포식(飽食)’이라고 한다면 구세대는 어떠한가. 나 자신부터 돌아보아도 모두 회사나 국가 등 소속돼 있는 곳을 사랑하고 또 무엇이든 갈망하는 정신에 넘쳐 있다.

이것은 한·일의 구세대에 공통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그 대상은 한·일 사이에서 미묘하게 다른 것 같다. 대·중·소 순으로 국가·기업·일족을 놓고 본다면 한국인은 ‘대와 소’가 두드러진다.

가족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추도 사이트’나 ‘가계보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보고 그럼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월드컵 축구 응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서울시청 앞에 15만명, 일

설에 의하면 최대 50만명의 붉은 유니폼 모습이 모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각 학교도 체험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응원을 이유로 학생들의 자진 결석을 공인했다고 한다. 그러면 당시 일본에서는 어떠했는가. 구청·시청 등에서 TV 중계를 결연으로 보는 정도는 허락했지만 함성을 질러서는 안된다고 정해져 있었던 것은 참으로 일본인답다.

한편 일본 구세대의 소속 의식은 어떠한가. 잘 알려진 대로 기업에 대한 충성심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해 이것이 지나쳐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이 기억에도 새롭다. 최근 10년간 2,336건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 숫자는 신고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면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패배해 미국의 점령을 받게 됨에 따라 국가 의식도 일단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9년의 국기·국가 법제화에 대해 아시아 인근 국가로부터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지만 그 경위는 별로 해외에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다. 사실은 히로시마현의 중학교 교사가 졸업식에서 국기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단을 내리는데 고심했던 교장이 고민 끝에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사건을 한국에서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법제화는 우경화 때문이 아니고 지나치게 좌경화된 일본을 중용(中庸)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한·일 양국은 모두 체면을 존중하는 국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상대방이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5. 한·일의 국민성

이렇게 비슷하나 다른 한·일이지만 기본적인 의식의 차이는 한국이 민족애에 투철한 반면에 일본은 세계주의적인 무국적 지향형이라는 것이다. 월드컵만 보아도 그렇다. 한국인에게는 이 대회가 국위선양의 장이고 세계에 자국을 알리기 위한 기회였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인이 이 대회에 무엇보다 기대했던 것은 세계 각국의 일류 선수들의 플레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플레이만 보아도 한국 선수는 역동적으로 검은 머리를 휘날리고 땀을 날려가며 달린다. 정력적으로 공격에 공격을 거듭한다. 축구만이 아니고 나 자신, 한국에서 출판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것을 실감했다.

그들은 우선 플러스면을 앞세운다. 허풍을 떤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열적이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내

세운다. 거만하지는 않지만 자존심이 강하다. 대범하지만 힘이 좋고 일단 일을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일을 추진해 나간다. 비교적 상의 하달 방식이 통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면 일본은 어떠한가. 축구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은 철벽 수비지만 왜 역전 골을 취소당하면서도 항의 한번 못하는가라고 할 정도로 냉정하기도 하다. 기업 차원의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 조직 전체가 가담해서 신중히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적인 일에 매달리는 소인배 라기보다는 착실하고 꼼꼼한 사람들이라고 한국인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어차피 도시락에서 워크 맨까지 만들어내는 일본인입니다.

한국의 대일 의식

1. 과대 평가와 과소 평가의 교차

언젠가 5년 전부터 사귀어 온 한국 여성의 부탁을 받고 나에게 편지를 전해 준 일이 있다. 친할아버지가 일본어로 된 나의 한·일 연애 소설을 보셨다고 한다. 한국어가 서투른 나를 위해 그녀는 할아버지의 독서 감상문을 영역해 준 일이 있는데 도중에서 번역을 중단하고 멀았

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원문을 살펴보았더니 뒤쪽에 일제 시대의 원한이 면면히 이어지

고 있었다. 나 자신 고생을 해 가면서도 자비로 취재를 거듭해 한국 문화의 매력을 계속 발표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나를 알아차렸는지 그 뒤에 그녀로부터 메일이 왔다. “실은 친할아버지가 아니고 외할아버지가 일제 시대에 일본인과 동거해서 사이좋게 지냈다”고. 이렇게 상반된 두 과거를 놓고 그녀도 망설였을 것이다.

이상과 현실. 이것을 양립시키고 있는 것은 한·일에 공통된 자세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완곡한 국민성이, 한국의 경우는 ‘공과 사’의 양면성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라는 가면(假面)’, 즉 ‘우리는’ 하고 말을 시작하자마자 개인적인 실감보다도 교육에 의한 고정 관념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목격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또 한·일의 성격 탓인지 유교 체질의 한국인은 우선 이념을 앞세워 논조가 연역법적인데 반해 일본인은 하나씩 문제점을 메워나가는 의식 구조 때문인지 개개의 사례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법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인상을 받은 일도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일단 체면 겨루기가 시작되면 한·일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사이여서 우월 의식의 충동이 일



어난다. 한국은 스스로를 일본 문화의 조상이라며 근세까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상하 관계에서 일본보다 위에 있었다는 것이고 반대로 일본은 근대 이후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우월했다는 것이다.

그런 일본에 대해 한국에서는 특히 월드컵 공동 개최 이전까지는 과대 평가와 과소 평가가 교차돼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한국 일반인의 일본에 대한 인상은 '식민지 지배'라는 부정적인 고정 관념과 '경제 대국'으로서의 압력, 또 한편으로는 유연한 '대중 문화'도 공존하고 있다.

이런 영향을 받아 자주 '아시아 경제 문화의 침략'이라는 소리도 들렸다. 일본 제품 배척 운동에서 가장 먼저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마일드 세븐」(담배)이다. 그런데 한국 신세대인 친구가 태연하게 마일드 세븐을 피우고 있어 "괜찮아?"라고 걱정스럽게 묻고 있는 나에게 "그래도 나는 신경쓰지 않아" 라며 웃고 있었다. 나는 나대로 그가 미국 맥주를 주문하려고 하면 "왜 이 집에는 진로가 없어?"라고 반문해 본다. 이런 마시는 장소에서도 그들은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해 "Shall we dance?"(일본 영화) 아직 못 봤어"라며 친구들과 말하는 것을 보면 이쪽이 놀랄 지경이다. 1998년 이후 일본의 대중 문화는 단계적으로 개방되게 되었다.

'이상' 부분에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한·일간이기 때문에 '현실' 부분이 무엇보다 타개책이 될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이렇게 양국을 비교하고는 있지만 원래의 교류나 접촉이라면 '그 나라니까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직접 만난 누군가를 통해 그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연역법적이 아닌, 귀납법적인 접촉을 하도록 권하고 싶다.

있는 권위주의 체제라는 선입관, 이를 상징하는 것이 1973년에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의 '경제의 시대'에 대해 말하자면 전쟁 직후까지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간에 농·공간의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1960년대부터 아시아에서 고도 경제 성장이 시작돼 아시아 NIES·ASEAN·중국 순으로 파급돼 갔다. 그 결과 이미 농·공간이 아니고 공·공간의 분업이 아시아 동부에서 확산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인 중에는 광역 통신 대국이라는, 한국의 IT 선진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앞서 말한 우월 의식의 힘겨루기에 의한 선입관 탓인지도 모르겠다. 반대로 한국인에게는 일본의 전통 문화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한국은 후진국이 아닌, 같은 시선,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패트너이자 라이벌이기도 한 것이다.

일본의 대한 의식

1. 시대에 의한 추이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크게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한·일을 보고 싶다. 최근 반세기 동안의 세계적인 흐름으로는 냉전의 영향을 받은 첫 번째의 '정치의 시대', 이와 겹치듯이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 성장의 두 번째 '경제의 시대'가 그 뒤를 잇고 현재는 물건·사람·정보의 유통에 바탕을 둔 세 번째 '문화의 시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의 정치의 시대, 당시의 한국에 대해 일본인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개발 독재의 인상이 강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실제로 그 후 일본의 안보 투쟁 같이 학생 운동이라는 형태로 민주화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구세대가 갖고

2. 선진성을 인정하는 용기, 한국 기업의 세계 진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10년 전 쯤에 알고 지내던 한국인이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내 꿈은 한국산 차로 저 고속도로를 다 메워버리는 것

이다”라고. 당시에는 설마하고 의심을 했는데 그로부터 9년, 드디어 미국의 소형차 시장에서 한국산 차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1,500cc 수준이 세컨트 차로 구입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 전체 생산 대수에서 1995년 이후에는 세계 5위를 차지해 미·일·독·불의 뒤를 잇고 있다고 한다.

그 이상으로 약진한 분야는 액정 전자 장치 LCD일 것이다. 세계 점유율 1위로 41.3%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36.6%가 그 뒤를 잇고 대만이 3위로 등장하고 있다. 상업 광고에서 현대의 이름을 들은 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1990년대 전반에 거품 경제가 붕괴된 후 한국에서도 역시 1997년에 IMF 사태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현재 가장 활기차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문화 부문인 것 같다. 구미를 모방하는 단계를 지나 오리지널도 추가한 것, 말하자면 ‘도시 민속 혼합 문화’ 같은 것이다. 이런 대중 문화가 아시아 각국에서 전성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에서도 한국 붐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유행은 ‘불고기와 패수건’ 같은 물건이었지만 한국 대중 음악이나 영화의 일본 공개를 통해 겨우 이제 사

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고나 할까. 이런 붐을 상징하는 것이 1999년의 한·일 영화의 교차 히트라는 현상이었다. 일본에서 액션 영화 「쉬리」(강재규 감독)가, 한국에서는 「러브레터」(이와이 순지 감독)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러브레터」의 키워드인 “오겐끼 데스까?”(안녕하십니까?)라는 표현은 한국인에게도 완전히 침투된 것 같아 나 자신도 여러 사람한테서 “오겐끼 데스까?”라는 인사를 받고 있다. 이국 땅에서 의외의 모국어에 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 교류에 참여할 때도 최소한의 상식으로 기본적인 인사 정도는 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미래 지향의 한·일 교류

마지막으로 한·일 교류의 장래를 전망하면서 양국의 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일본의 과제로는 앞서 소개한 대로 한국도 포함한 아시아의 선진성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된다는 점이 아닐런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픔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현실 도피 끝에 홀로 남겨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과제는 ‘일본에 대한 침략 알레르기를 불식한다’는 점이 아닐런지. 앞서 말한 일본 대중 문화의 개방도 문화 침략이라고

반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을 세계에 넓히는 결과가 되고 있다. 현재도 용어리로 남아있는 교과서·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를 그 입장에 놓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 한국의 국정 교과서도 역시 한국 동란이나 스스로도 파병한 베트남 전쟁의 자리매김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포식과 쾌락의 시대에 살 후세의 사람들이 과연 순직한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을까. 이것은 현실을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성적인 면에서도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내적으로는 국민도 일종의 희생자지만 아시아에 대해서는 일본 전체가 가해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중 구조설이다. 일본은 단적으로 아시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너무나 갈등이 심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나 할까.

야스쿠니신사는 한국의 국립 묘지에 해당된다고나 할까. 마치 한국 동란의 영령을 참배하는 한국 대통령에 대해 만약 북한측이 “우리 인민을 죽인 자에 왜 참배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면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고이즈미 수상이나 다카마루노미야 전하가 한국의 국립 묘지를 참배한 것은 설령 그곳에 항일 운동가가 모셔져 있다 하더



라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영령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북한과의 관계

여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한·일 양국에 공통된 과제로는 또 한가지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기억 속에 옹어리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도 역시 북한을 가상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00년에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무조건 위협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 남북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한·일 교류도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역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일본에서는 자주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겪은 지역을 배경으로 한 시뮬레이션 소설이 발표되는데, 이런 가상에 의한 미래 세계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일본도 남북 분단 국가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점이다. 만약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는 것이 며칠만 늦어졌어도 훗카이도는 러시아 영역으로, 오키나와 뿐만

아니라 규슈도 미국 영역으로 됐을지도 모른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역 감정과는 별도로 좌·우익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자본주의파와 공산주의파가 각 지방에 산재하고 또 그들이 같은 민족이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런 절실한 민족 감정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힌트를 주는 으로는 일본에서도 크게 히트한 영화 「JSA」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남북 관계나 미묘한 민족 감정을 알게 된 일본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

또 구세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한국 팬이 판문점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나 자신도 그 국경에 섰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복받쳐 오르는 것이 있었다. 이산 가족의 간절한 한이 그곳에 서려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메어진다고나 할까.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도 뿐리깊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 자신도 “일본인은 우리의 통일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고 직접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일본의 우익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정도의 강도로 재일 한국인, 특히 북한 출신들은 여러 가지 통일 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의 열렬한 북한 포용 정책에 대해 일본 정부도 줄곧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6월의 서해 교전 직후에도 새삼스럽게 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7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은 말하자면 후방 기지다”라고 발언하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 동란과 일본’이라고 하면 한국 특수가 생각난다. 당시에는 마치 한국인에게서 “남의 불행으로 돈을 버느냐”라는 말을 듣는 것 같아 어깨가 좀 아진 것 같았는데 이번의 대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의식을 역전시킨, 한·일 쌍방에 플러스 지향적인 것이다.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혓된 일본 알레르기가 아니고 일본을 동반자로 끌어들여 해결을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도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이것은 여담이지만 북한이라고 하면 과거의 고구려의 위치에 해당한다. 한국은 삼국 시대의 신라에 해당하는 경상도파와, 백제에 해당하는 전라도파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어쨌든 일본에 이해심을 갖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도 올해 12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맞게 돼 한·일간의 밀월기도 일단락짓게 되었다. 내년 이후에는 대일 정책이 강경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한반도 문제를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것은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장래적으로 통일이 달성되면 그 재건 비용이 필요 불가결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을 중심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요구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의 민족 감정의 용어리도 가세해 상당한 확률로 통일 직후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심각한 사태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 물론 이것은 2001년의 교과서나 야스쿠니 신사 문제와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이에 대비해 일본측도 마음가짐이나 해야 할 일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좌익에서 우익까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또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한가지로 강요하지 않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지금 당장 생각해 두는 것이 국제적인 접촉의 매너가 아닐런지.

나 자신은 좌익에서 우익까지 한국도 일본도 포함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왔는데 이로 미루어 여기서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극동의 좁은 자장(磁場) 속에 있으면 그 자력(磁力)에 감화되고 마는 것인지, 때로는 서로를 놓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세계에 내놓고 보면 우리 한·일만큼 친근한 민족도 없다는 것이다.

2. 기준(基準)의 공유

그토록 격렬한 갈등도 광활한 세계에서 보면 슬프게도 결국은 극동의 일이다. 앞서 말한 월드컵에서도 틀림없이 한 세트(set)로 간주되고 있었다.

물론 1세기 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대등한 관점에서 본 것이지만 과연 전세계 시청자 연인원 260억 명 중 도대체 몇 퍼센트나 한·일의 차이점을 정확히 말할 수 있겠는가.

서울의 개회식에서는 제사 복장에 일본의 신관(神官) 복장을 연상한 일본인도 적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결코 똑같지는 않다. 비슷하나

다른 것이다. 그래도 어딘가 먼곳에서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대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현대에서도 좋은 나쁘든 사회·생활의 틀로서 세계화적인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 언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컴퓨터 언어라고나 할까.

한·일간의 협력도 계속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서울대학과 나고야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나노 테크놀로지(초미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복합 물질인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실리콘을 소재로 한 반도체 소자의 1000분의 1의 지름을 실현했다고 2000년 2월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발표했다고 한다.

어차피 의식 구조에서 기술력에 이르기까지 서로 대립하기 쉬운 한·일이지만 때로는 파트너로 때로는 좋은 라이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무승부 게임이 아니고 이기려는 게임이 돼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걸맞는 의식 구조라는 것도 있을 것이다. 나 자신은 경제학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돌리면 돌릴수록 는다’는 경기(景氣) 같은 것 인지. 그래도 충돌하게 되면 서로 타협을 본다. 다른 나라와의 접촉 이상으로 역할 분담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한국의 세계화, 즉 국제화는 자기 존재를 해외에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일본의 국제화는 지금까지는 오히려 일본이라는 것을 버리고 그 절반을 구미화(歐美化)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같은 동양인으로서의 인식에 의해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상호간에 그 나라로서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아시아 시선(視線)」이라는 이름의 사진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마음에 든다. 상대방의 시선에 서서 자신들을 되돌아본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 ☺